

## 기다림과 교제

### *Waiting and Fellowship*

눅가복음 (Luke) 1:36-40

우리가 함께 본 영화는 “The Nativity Story”인데 그 중 뒷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 나온 아기 예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아이 둘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만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기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The scene we just watched was the last segment of the movie, “The Nativity Story.” We saw the baby Jesus coming into the world from His mother’s womb. While I was watching this scene, it reminded me about the birth of my own children. I was allowed to enter the delivery room and as I stood beside my wife, I saw her suffering and pain.

그리고 아이 둘 다 꼭 밤 11시, 12시에 진통이 와서 밤새고 아침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더 했습니다. 밤새 옆에서 아파하면 주물러 주고 고통 오면 간호사 부르고... 둘째 아이 태어난 다음에 제가 저의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애 그만 낳자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낳겠다고...”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my wife felt the beginning of labor sometime between 11 pm and midnight and then gave birth in the morning, the physical pain was even more intense. I was beside her all night long and if she felt any pain in her body, I would give her a massage and call the nurse. After the second child was born, I told my wife, “Don’t have a third child. I cannot take this anymore.” It was very hard for me, even if I was not the one having the babies.

신약성서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기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선택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The New Testament does not tell us of anything about Mary between her pregnancy through the Holy Spirit and her giving birth. Today’s scripture, however, is the only passage that tells us something that did occur between those times. Mary was selected by God and gave birth to a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She prepared herself very well and was greatly used by God.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쓰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교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All of us are selected by God through His grace. Nevertheless, many of you may feel that you have not been chosen and are useless to God. The important thing for us to remember is that we should prepare and wait on God for Him to call on us to be used in His time. When we take a look at scripture, Mary was waiting on God in His time, while she associated with other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 간 것입니다.

Mary was very happy. Though she was afraid that God would use a person such as herself, she was happy. However, Mary didn't want to be happy by herself. She was looking for others whom she could share her joy. So Mary went and visited Elizabeth.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찾았을까요?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면서 엘리사벳을 예로 들었습니다.

The scripture tells us that Mary left her home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where she entered Zechariah's home and greeted Elizabeth. Why did Mary visit Elizabeth? Was it because Elizabeth was Mary's relative? Maybe an even more important reason was that she and Elizabeth shared a similar experience. The angel explained to Mary how it was possible to have a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and used Elizabeth as an example.

물론 이 두 여인의 경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이전이었고 남자 없이 잉태한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결혼은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여인에게서 공유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Of cour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omen. Mary became pregnant but yet was still a virgin. Elizabeth was married but she was not able to have children because she was too old. Nevertheless they had a similar experience to share. That is, they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same Holy Spirit.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 좋은 그룹을 형성하면 치유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We, as humans, are easy to be drawn to others that share similar experiences with us. When people like this gather together, they are able to form a lasting relationship and can even help each other through the difficulties of their shared experience. Also, we can expect that our lives will forever be changed through these relationships.

요즘은 TV 나 인터넷이 잘 되 있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현금도 크레딧 카드로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거나 영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교제입니다.

Recently, some have said that we don't need to come to church because there are many ways to worship God – watching worship services on TV or on the Internet, listening to CDs, providing our offering through credit cards ... At the same time, the church is not simply a place for people to go to meet an obligation of their religion or gain spiri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the church is for fellowship.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란“지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지 않으셨어요?”하면서 악수하고 hug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물음과 돌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제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The church is a community in which we share experiences of our Christian life. In other words, church is the place that we greet each other by saying, “How is it going?” or “How are you doing?” and hug one another. The church exists for this kind of caring. Our lives should be filled with peace by sharing healthy fellowshi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마리아는 약 3 개월 정도 엘리사벳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떨쳐 버리고 미래에 직면할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사역을 위해 이런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Mary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Elizabeth for three months. Through this relationship with Elizabeth, Mary tossed her fear away and received new power to face the future. We need relationships like this with each other for our own ministr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교제하고, 주님 오신 날을 마음 속 깊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행동과 친절한 말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I hope that all of us can share in the fellowship as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as we wait with great fervor on the day that Lord was born. At the same time, we must return to the world with loving deeds, kind words, and warm smiles. I pray that all of you can be a useful instrument for the kingdom of heaven.